“제주도 미래 생각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제주 아껴야”

인터뷰 퇴임 앞둔 천주교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4대 교구장으로 이달 22일 퇴임
2002년 착좌 18년간 교구 이끌어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년이 되어 이달 22일 제4대 천주교제주교구장에서 퇴임하는 강우일 주교의 말이다.

종교지도자를 넘어 사목서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발언해온 강우일 주교와의 인터뷰는 지난 13일 천주교제주교구청 강당에서 제주지역 언론사 공동으로 진행됐다. 2002년 10월 착좌해 지난 18년 동안 제주교구를 이끌어온 강 주교를 떠나보내며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잇따르자 제주교구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사전 질문지 없이 1시간에 걸쳐 현장에서 이루어진 질의와 응답에서 강 주교는 당장의 이익만을 챙기려 대책없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제주 자연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코로나 시대에 이웃, 사회를 더 돌아봐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200자 원고지 약 50장 분량, 1만자 가까운 강 주교와의 인터뷰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해 소개한다. 퇴임 감사 미사는 17일 저녁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열렸다.

▶지난 18년을 돌아보는 소회는.

18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 처음 제주에 왔을 때는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수 있겠다는 마음에 기뻤는데, 살다보니 제주가 그렇게 행복한 땅은 아니었다. 제주도민들의 그러한 아픔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함께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제주 현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종교인으로서 이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지.

세상사람들은 종교인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걸로만 아는데, 종교의 존재 의미는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모른척 할 수 없고, 성직자와 교회는 기쁘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한다.

▶제주 2공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와 정부에서는 현재 공항이 협소하기 때문에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것은 제주라는 작은 섬이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다. 지하수, 쓰레기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결정이다.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정책결정자나 도민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실을 깊이 숙고해주길 바랄 뿐이다.

> “
> **종교는 인간답게 사는 삶 도와야**
> **제주땅 아름다움 너머에 고통이**
> **하느님 아픔 함께하라 보내신 듯**
> **2공항 제주 앞날 생각안한 결정**
> **자꾸만 나무 베어지고 도로 생겨**
> **코로나 모두의 연대 중요성 확인**
> ”

▶2공항 갈등 이전에 강정이 있었다. 현재 강정마을은 두 개로 나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갈등 봉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정해군기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작됐다. 일부 주민과 은밀히 협약하고 유치한 탓에 주민 대부분이 격분했다. 오랫동안 반대운동을 펼치며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저라도 지치고 힘들어 그만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마을을 군사기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로 싸우는 분들이 아직 계시다. 서로 상반된 생각과 자세를 하루아침에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다. 가톨릭 교회에서 진실한 평화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기 위해 강정마을에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를 설립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작업을 서서히 펼쳐가고 있다.

▶대규모 사업으로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제주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을 것 같다.

제주시 아라동에 살고 있는데 제주대 방향으로 주변을 산책하면서 행복했던 때가 많았는데 자꾸만 도로가 생겼다. 도로가 날 때마다 수만 그루 나무가 잘려나가는 모습은 마치 나무의 시체 같다. 영리병원을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들어섰지만 지금은 괴물처럼 남아있다. 제주도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고향땅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모습에 슬픔을 느낀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은 돈으로 생산해낼 수 없다. 조물주가 주신 아름다운 피조물로 한번 파괴되면 회복 불가능하다. 불과 눈앞에 몇 만불 수익이 있다고 외자 유치해서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이 제주도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손을 대지 않는 일이다. 돈을 쓴다면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보존하는 데, 훼손된 것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지난 13일 천주교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가 교구장으로 재직해온 지난 18년 동안의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4·3특별법 개정 추진 등 70여 년이 지나도 4·3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4·3 70주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4·3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4·3을 겪은 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속속들이 후손이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3생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기억이 전승되도록 학교 교육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03년 제주교구에서 신축교안(이재수의 난)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을 했다. 내년이면 120주년이 된다.

그 시대 도민들의 종교심성 안에 무속종교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미흡했고 오해가 오해를 낳으며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났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천주교 신자 400여 명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학살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 앞으로 큰 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이루는 데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가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길은 인간이 형제애로 협력하고 서로 보듬어 안고 보살피는 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동물, 식물, 인간 모든 존재가 다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제3의 팬데믹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생존하고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연결됐다고 생각하면서 이웃을 내 형제, 자매로 여겨 조심하고, 존중하고, 도움을 드리는 자세다.

▶퇴임 후 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 교회에서 교구장이라는 보직은 사임하지만, 천주교의 주교로서 사목적인 일이 있으니 저를 요청하면 기쁘게 달려갈 생각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강우일 주교는…

강우일 베드로 주교는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4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1986년 주교로 임명됐다. 1995년 가톨릭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고 2002년 10월 제주교구장으로 착좌했다.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에서 제주에 부임하면서 제주4·3 문제를 수면 밖으로 끌어내 교회 등 한국사회가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었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이사장, 한·베 평화재단 이사장, 예멘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나오미 센터 건립 등 평화와 인권 운동에 봉사해왔다. 2008~2014년에는 한국주교회의 의장을 역임하며 프란치스코 교종 방한 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 가톨릭 교회의 숙원사업이던 124위 순교자들이 복자품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6년부터는 한국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으로 기후 위기 속 천주교가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